

# 불교신행의 지남...자기완성과 이웃구제 맹세



불교는 서원(誓願=pranidhana)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종교다. 서원이란 불교도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이웃을 구제할 것을 맹세하거나 소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다짐하고 실천해간다는 뜻에서 서원은 발원(發願)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또한 서원은 절대자의 권능에 의지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원(祈願)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절대자의 권능에 기대려는 것은 유신종교적인 발상이다.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 어디에서도 수행과 교리체계를 설명하면서 기원이나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혹시 불교를 내세우면서도 기도나 기원을 강조한다면 용어의 족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달리 서원이나 발원이라는 말은 넘치게 나타난다. 특히 대승경전이든 어디든 불보살의 서원이 제시되지 않는 곳이 없다. 아미타불은 범장이란

이름의 수행자였을 때 이 세상을 극악으로 만들기 위해 48가지의 서원을 세운다.(아미타경) 약사여래는 질병 없는 세상을 위해 12가지의 서원을 실천한다.(약사본원경) 보현보살은 불도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10가지 행원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화엄경)

불보살의 서원을 살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웃을 위한 무한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손톱만큼의 이익이라도 챙기겠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이기주의를 버리고 완벽하게 이타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회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원의 철학'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사홍서원(四弘誓願)이다. 사홍서원은 '한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노라(衆生無邊誓願度) 한없는 번뇌를 다

끊겠노라(煩惱無盡誓願斷)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노라(法門無量誓願學)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노라(佛道無上誓願成)'는 참으로 거룩한 다짐이다. 이 다짐에는 불교 신행의 두 가지 중심가치인 '지혜'와 '자비'가 잘 나타나 있다.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 자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생을 다 제도하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것은 교화를 통해 온 세상을 정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실천이며 불교적 이상의 구현인 수행(지혜)과 교화(자비)의 완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의식은 그 실천을 다짐하는 사홍서원의 함승으로 끝난다.

불교적 서원의 최고형태인 사홍서원의 원형은 《법화경(法華經)》 약초유품에 근거한 것이다. 《법화경》은 여기서 가섭에게 '여래가 출현한 것은 비유하면 거대한 구름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윤회의 세계로부터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불사를 한다고 설명한다. "해탈하지 못한 사람을 해탈케 하며(未度者令度),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게 하며(未解者令解), 안락을 얻지 못한 사람을 안락하게 하며(未安者令安),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열반을 얻게 할 것이다(未涅槃者令得涅槃)."

## ‘법화경’에 근거·천태지의 명명

부처님의 이 같은 자비를 '사홍서원(四弘誓願)'으로 명명한 사람은 중국 수나라 때의 고승 천태지의(天台智顓: 538~597)였다. 대사는 《석선바라밀차제법문(釋禪波羅蜜次第法門)》이라는 글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리심이란 보살이 중도를 실천하며, 올바른 지혜로서 제법의 실상을 관하며, 일체중생을 연민하는 대비심을 일으키며, 사홍서원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사홍서원이란 첫째, 아직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 무변이지만 맹세코 제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번뇌가 무수히 많지만 맹세코 끊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평안을 얻지 못한 중생을 평안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맹세코 알도록 해주는 것이다. 넷째,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중생을 열반을 체득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상의 불도를 맹세코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사홍서원은 부처님의 자비를 설명할 때,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본받고자 하는 불자가 종교적 실천을 다짐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서원은 다분히 대승불교적 가

치관을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불교의 뿌리가 부처님 그분에게 있다면 서원의 철학도 당연히 부처님에게서 비롯을 찾는 것이 옳다. 그 증거의 하나가 《불보행집경》 27권 향보리수품의 기사다. 이에 따르면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를 마련하고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하고 정각을 얻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부처님은 이 서원대로 보리수 아래서 모든 고난과

를 수행하여 성취하려는 원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모기와 등의 욕설과 매질을 참으며 몸이 병이 들어 목숨이 끊어지려 한 다 하더라도 즐겁지 않은 일을 견디고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집착하지 않기 위해, 두려움을 견디고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끝내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만약 욕설과 분노 해침의 생각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모든 번뇌를 끊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고요한 곳에서 관법을 수행하여 성취하려는 원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은 불자가 서원을 왜 세워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 불자가 서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

된다. 여기에는 이미 대승불교의 이상인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 모든 수행은 '부처님과 친족의 은혜를 갚기 위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다는 점에서 하화중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온갖 어려움을 참고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원과 같은 거룩하고 멋진 신행의 지남(指南)을 가진 불교가 현실에서도 그 이상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유보된다. 불자를 자처하면서도 불교가 지시하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다. 삼독의 극복은 커녕 욕심을 확대하는 무한경쟁을 가르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보다는 제발 이렇게 해달라는 기원만이 넘쳐난다. 냉소적으로 말하면 부처님보다는 외도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것이 우리나라 불교신행의 현주소라면 부처님 법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는 임오로만 사홍서원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신행을 할 때가 됐다. 고려 때 나옹해근(懶翁慧勤: 1320~1376) 화상은 발원문을 지어 아침저녁 이런 다짐을 했다.

"이 세상 곳곳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행복을 얻게 하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온갖 고통 면해지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생사고해 해탈하며 오래도록 이와 같이 교화하여 마침내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게 하겠노라(十方世界無不現 普令衆生入無爲 文我名者免三途 見我形者得解脫 如是教化恒沙劫 畢竟無佛及衆生)"

우리로 올레부터는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기 위한 아름다운 서원을 하나씩 세워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지는.



홍 사 성 불교평론 주간

## 불교의식의 사홍서원 함승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다짐

서원보다 기원 넘쳐나는 현실

아름다운 서원 하나씩 세워보자

번뇌를 극복하고 무상정등각을 성취했다. 실로 부처님이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금강불교의 서원력(誓願力) 때문이었다. 그래서 뒷날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은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외에 서원과 방편 등 네 가지를 더 추가로 십바라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불교가 얼마나 서원을 중요시하는 종교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과거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수행자는 반드시 서원을 세우고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중앙함 26권 《원경(願經)》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쳤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부처님과 이웃의 은혜를 갚기 위해, 친족이 천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내게 음식과 의복과 모든 생활도구를 보시하는 사람에게 큰 공덕이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요한 곳에서 관법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음 선원

〈국내·국외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양읍 무곡4구 신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상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신암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 미국 뉴욕 플라시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1-718)460-201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턴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앤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9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FAX:(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투쿠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i,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 Bom Retiro-Sao Paulo- CEP: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 壬辰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원장 대행  
주지혜원  
사부대중일동